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30주년 정기·신춘음악회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3월호



지나해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이 '평화를 향한 역동과 진혼'을 주제로 공연을 선보이는 모습.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제공>

새로운 출발... 긍정의 의미 전해지길

14일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벚노래'·'신맛이긋'·'쑥대머리' 등 7월 '아장제' 9월 '브랜드 작품...' 계획



박승희 상임지휘자

기묘한 벚노래를 주제로 1994년 오케스트라 아시아 창단 연주회에서 초연된 곡이다. 나팔·북·징 등 국악기들로 '뫿을 울리고 출항하는 듯한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아장 연주에는 한예중 전통예술사 및 전문사에 재학 중인 김슬지가 맡을 예정이다. 아장곡 국악관현악을 위한 '신맛이긋'도 관객들을 만난다. 이어 마립바 협주곡 '바람의 노래'는 자유로운 무반주의 마립바 연주로 몽골의 전통 민요와 들판의 분위기를 떠올리게 한다. 마립바 연주에 프랑스 파리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한 김지향. 이 밖에 강태훈은 생동감 넘치는 거문고 협주곡 '섬화(閃火)'를 연주하며, 소리꾼 김산옥은 '쑥대머리'를 광주에서 초연해 우리 정한을 담아낼 예정이다. 쑥대

머리는 '우리 소리의 세계화'를 목표로 '판소리(판소리+오페라)'라는 새로운 장르로 국악 지평을 넓힌다는 목표로 박승희가 작곡했다. 일제강점기에 국악 임방울이 불러 100만 장 음반 판매고를 올리는 등 '쑥대머리 신화'를 만들기도 했다. 새야새야 주제에 의한 국악관현악 '바르도(Bardo)'도 레퍼토리에 있다. 티베트의 환생 신화 등을 우리 전래민요 '새야새야 파랑새야'를 주제 선율로 차용한 곡이다. 강태훈은 서울대 음악대학 석사과정에서 수학했으며 '조선 판스타' 1대 우승자인 김산옥은 전남대 국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박승희 지휘자는 "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을 맞아 이번 연주회는 '어딘가로 나아가거나 기개를 펼치는 곡'들로 선별했다"며 "티베트, 몽골 등 다양한 국기를 모티브로 한 곡들이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두에게 긍정적 의미로 전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연은 7월 '아장제', 9월 '브랜드 작품 초연 연주회', 12월 '송년음악회'까지 이어지는 올해 기획 공연의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 3만 원, S 2만 원, A 1만 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인류를 밝힌 세계 문명' 영화·다큐로 탐색

전남대 박물관 13일 첫 강좌



'미이라'

'메소포타미아인들', '고대 이집트', '황하와 장강', '인더스 문명', '그리스 문명', '로마 문명', '아즈텍, 마야', '잉카제국과 안데스'... 세계 주요 문명의 발상지는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상상력을 준다. 오늘의 인류가 있게 한 4대 문명을 비롯한 다양한 문명은 향후 인류의 삶과 역사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계 문명의 이모저모를 깊이있게 탐색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전남대 박물관(관장 정금희)이 마련한 '인류를 밝힌 세계 문명'이 그것. 오는 3월 13일부터 3개월간 매주 수요일 전남대 용지관 컨벤션홀에서 진행되는 문화강좌는 영화, 다큐 등을 함께 볼 수 있는 자리다. 첫 강의(13일)는 이준호 경희사이버대 후마니타스학과 교수가 문을 연다. 이 교수는 오늘의 문명을 결정하기까지의 기구적인 요인을 다각도로 살펴볼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20일)는 김구원 단국대 고대문명연구소 연구교수가 '문명의 시조, 메소포타미아인들'을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김 교수는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왜 문명의 시조로 불리게 됐는지 자료 등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이밖에 강좌는 강주현(메타이집트)를 비롯해 이성원(전남대), 김용준(고려대), 김혜진·김수완·강정원(한국외대), 김기훈(공주대), 최일성(한서대), 장재준(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안성두(전 서울대)

등 주제별로 전문가들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 강의 이후에는 '비포 더 플러드', '벤하:레저렉션', '미이라1', '알라딘' 등 다큐와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시청각 자료를 매개로 세계 문명을 좀 더 깊이있게 들여다보자는 취지다. 정금희 관장은 "이번 강좌는 세계 문명이 언제 어떻게 발원해 확장되고 특정 지역에 영향을 미쳤는지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라며 "문명을 비롯해 미술, 역사학 등 인문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총 350명을 모집하며 수강료는 일반 12만 원, 만 65세 이상과 전남대 교직원 및 가족은 10만 원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판소리-모두의 울림' 공개



올해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시그니처는 리듬감과 울림이 특징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판)이라는 의제를 '소리'로 공명시키려는" 의의를 반영했다. 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박양우)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주제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시각화한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공개했다. 이번 EIP는 스튜디오 와이팩토리에서 개발했다. 강재원, 이승현 2명으로 구성된 와이팩토리는 감각적이며 세련된 시각작업을 진행해왔다. 춤을 추는 듯 리듬감이 느껴지는 소리의 파형에 움직이는 듯 자장을 발산하는 굵은 산맥의 이미지가 결합돼 있다. 이번 EIP는 낮과 밤 두 버전으로 제작돼 있다. 오늘날 세계적 화두로 제기된 인구과잉을 비롯해 기후 문제 등이 소리의 파형 속에서 환기된다. 박양우 대표이사는 "이번 EIP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발산하는 소리 파형을 모티브로 감각적으로 구현한 점이 특징인 것 같다"며 "오늘날 전 지구적인 문제로 부상한 환경 문제 등을 다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학농민혁명 130주년' 유적지와 지도자들 추억의 돌담길·재미난 골목길 '새봄 남도투어'

올해는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이다. 1894년, 의로운 깃발을 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은 역사의 물결을 바꾸었다. 동학의 정신은 항일 의병과 5·18민주화운동, 촛불혁명까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등 여러 미완의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예향'은 3월호 특집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통해 전남·북 동학 유적지와 동학지도자들을 살펴보고, 여장군 이소사 음악창작극을 무대에 올린 장흥 '문화공감 예음'에 귀를 기울인다.

(La Jolla Cove) 등 30여 개의 해변은 은퇴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2024 세계 디자인수도'로 또 한 번 변신에 나가고 있는 샌디에이고의 명소들을 둘러봤다. 골목여행에는 재미가 있다. 추억이 있고, 자연이 있고, 오랜 세월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다. 사람이 많아 복잡해도 재미나고 거니는 이 없이 한가해도 좋다. 새봄을 맞아 영화 속에 등장하는 구불구불 산자락 골목길과 추억의 돌담길, 역사가 살아있는 이야기 고살길까지 전남의 재미난 골목길을 '예향 40주년과 함께하는 남도투어'에서 만나본다.

'예향 초대석'은 도시문화학자이자 도시답사기인 김시덕을 만나고 왔다. 김시덕은 전국 구석구석을 걸으면서 19세기 말부터 현재에 이르는 세 겹 '시간의 층(時層)'을 기록하고 해석한다. 바로 '삼문화(三文化)' 광장이다. 그에게 "세상은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무한하게 펼쳐 있는 거대한 도서관"이나 다르없다. 최근 '한국 도시의 미래'를 펴낸 그는 "자신이 사는 도시의 모습을 냉정하게 들여다보고 그 도시의 미래를 예측할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한다. '해와문화여행'은 해변의 낭만 샌디에이고 편이다. 인구 330만 여명의 샌디에이고는 은퇴자들이 꿈꾸는 로망의 도시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다양한 문화 인프라, 풍부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어서다. 특히 뉴욕 센트럴파크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운 발보아 공원(Balboa Park)과 라호야코브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은 문화생태도시 답양으로 향한다. 죽녹원과 답양호 용마루길, 소쇄원 등 생태·문화 자원이 풍부한 답양군이 관광산업의 르네상스 시대를 연다. '담주 다미담 예술구'를 비롯해 답양 LP음악 충전소, 해동문화예술촌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 또한 답양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전통 쌀엿과 한과 등 세대가 이어온 전통음식의 맛에도 변함이 없다. 3월의 봄기운이 생동하는 답양의 맛과 멋, 흥을 찾아 떠나보자! 이외에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은 LA 그랜드애비뉴의 미술관들을 둘러보고 기획물 '호남의 누정'은 충청공 김덕령의 의와 춤이 깃든 광주 취가정으로 안내한다. 새봄을 시작한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시리즈는 '작은 네모' 속의 설레임이 담긴 답양우표박물관으로 시작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여성가족재단 '젠더 브리프 제67호' 발간

광주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김경례)이 '광주지역 전략산업의 여성직업 교육훈련 방안'을 주제로 '젠더 브리프 제6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부상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광주여성 고용 실태를 분석하고,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검토·제안하는 내용을 수록했다. 분석에 따르면 광주지역 전략산업(AI·헬스케어) 사업체의 여성 고용 현황은 전체 고용인원 대비 평균 7%(AI분야), 8%(헬스케어 분야)로 저조했다. 여성 종사자가 전혀 없는 기업 또한 AI사업체의 26%(전체 123개 중 32개), 헬스케어 사업체의 24%(127개 중 30개)로 성별 고용 격차가

존재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데이터 코디네이터', '케어 코디네이터' 등 향후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관내 5개 구, 세일센터, 산학협력단 등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했다. 두 산업 분야에서 여성이 소외되지 않도록 여성인재 양성과 취업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담았다. 김경례 대표는 "민선 8기 공약 중 '양질의 여성 특화 일자리 창출'을 실현하는 데 이번 브리프가 나름의 참조점이 되길 바란다"며 "재단은 향후 여성 취업과 고용 안정성 확보 등에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에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Modern Construction' (MODERN) featuring services like 'Building/Real Estate Construction, Steel Frame, Remodeling'. It includes images of various construction projects and contact information: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